군산 총선 '一與多野' 구도

국민의당 김관영 후보 재선 노림에 4명 후보 도전장

20대 총선에서 군산지역은 현역의원인 국민의당 김관영 후보의 재선에 맞서 4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난 25일 등록을 마친 후보는 채용묵(새누리당) 후보를 비롯해 김관영(국민의당), 김윤태(더불어민주당), 조준호(정의당), 함운경(무소속) 등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관영 후보에 대한 민심의 향방이 주목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제19대 총선 때 민주당 경선에서 김관영 후보에 밀려 정계를 떠난 바 있는 강봉균 전 의원이 최근 새누리당에 입당하면서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새누리당 채용묵 후보는 2년 전 시장 후보로도 출마해 13.51%의 득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지역에서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다.

마침 군산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누리당 중앙당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면서 채 후보에게 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채 후보는 "새누리당의 불모지인 군산에서 1996년 여당의 기적을 재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힘을 모아달라"면서 "군산경제를 회복해 걱정 없는 군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인 국민의당 김관영 후보는 재선을 통해 집권여당의 힘있는 2선의원이 되어 군산발전을 확실히 앞당기겠다는 각오다.

김 후보는 '오직 민생! 군산 경제를 꼭 살려내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목소리를 정치의 중심에 두겠다"고 피력했다.

또 "새만금개발청 신설과 국가예산 1조원 돌파를 지난 4년의 대표 성과로 꼽으며 4년의 토대 위에 군산이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을 현실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더민주당은 전 국회도서관장을 지낸 김윤태 후보를 내세웠다.

현역 김관영 후보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김윤태 후보는 정치신인답지 않은 자신감을 내세우고 있다.

김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이 선택하고 정통 야당이 또다시 새롭게 선택한 김윤태를 적극 성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지난 4년간 군산은 자존심을 빼앗겼다"며 "상처입은 군산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밖에 정의당 조준호 후보는 전국민주노총 6대 위원장과 정의당 공동대표를 지낼 만큼 전국구라는 점에서 이번 선거에서 예상 밖의 수확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7전8기의 무소속 함운경 후보는 낙선의 고배를 여러번 마시고도 또다시 출마할 정도로 지역 내 인지도가 높은 인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지난 29일 더 민주당 김윤태 후보와의 단일화를 제안해 성사여부가 주목 받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최윤식 소방간부후보생 시험 최종 합격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 소방행정학과 최윤식(26 / 2학년 휴학)씨가 2016년도 제22기 소방간부후보생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 주관으로 매년 치러지는 소방간부후보생 시험은 올해 전국적으로 609명이 지원해 남자 26명, 여자 4명이 선발됐다.

최씨는 "스스로 정한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끝에 얻은 결과로 뿌듯하고 기쁘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조직과 함께 발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총장실을 방문한 최씨에게 김도종 총장은 축하 인사와 함께 "원광대생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연구하는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학과장 양기근 교수는 "학과 교수들이 학생들을 부모 입장에서 가르치고, 이론과 실습을 비롯해 멘토 활동과 심층 상담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잘 따라줘 매년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최윤식씨는 앞으로 중앙소방학교에서 1년간 교육을 받은 후 지방소방위로 임용돼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기초생활수급자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10만원까지 지원

군산시가 기초생활수급자 고등학생에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학교 교육과정의 하나인 수학여행에 불참하는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시 희망복지지원단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동등한 교육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별 수학여행 시기에 맞춰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전북도교육청에서도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하므로 해당 지원금을 차감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학교폭력 예방 간담회

익산경찰서(서장 이동민) 중앙지구대(대장 김용대)는 신학기를 맞아 3월 29~30일사이 2일간에 걸쳐 중앙지구대 관내소재한 원광여고등 8개 중·고등학교를 방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등의 범죄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중앙지구대장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장선생님등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용대 지구대장은 최근 익산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이 '백세인생'을 패러디해 만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15세인생 UCC'를 홍보하며 학교폭력 발생시 신고 및 대처요령등에 대하여 당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새만금국제마라톤대비 나포면 꽃식재 등 환경정비

군산시 나포면(면장 구자성)은 오는 4월 10일 개최되는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마라톤 코스에 대한 환경정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나포면은 이번 새만금국제마라톤 대회 코스에 12km 구간이 포함돼 있다.

이에 나포면 이장협의회 등 자생단체와 주민들이 솔선수범해 깨끗한 자연환경을 선보여 선수들의 경기에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로변 꽃잔디, 팬지 꽃밭 조성을 시작으로 원서포 삼거리에는 무궁화를, 원나포 마을에는 팬지, 잔디패랭이 및 철쭉을 식재함으로써 밝고 생기있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베트남 GC FOOD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외국인투자신고 마쳐…알로에 · 코코넛 젤리 마켓 80% 점유

베트남 GC FOOD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해외기업으로는 7번째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했다.

30일 베트남 GC FOOD기업은 부산소재 외환은행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외국인투자신고를 마쳤다.

작년 7월23일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GC FOOD 기업은 베트남 알로에·코코넛 젤리 마켓의 80%를 점유 중인 기업이다. 약 9만평 정도의 농장에서 생산되는 알로에베라를 베트남 내 메이저 기업들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한국·일본·싱가포르 등 주요 아시아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번 외국인 투자신고는 실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준비단계다.

GC FOOD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포션커피와 홍삼·알로에베라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설립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 역수출할 예정이다.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전진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GC FOOD의 응웬 반트 대표이사는 "국가식품클러스터 R&D센터와 협력해 패키징 디자인 향상과 한국산 홍삼, 자사의 알로에베라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주심에 감사드린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안내

군산시는 2015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시기가 도래 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 법인세의 10%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하던 것을 2014년 귀속 소득 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매년 4월 법인의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하게 됐다.

올해부터는 관계법령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무신고로 처리돼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는 만큼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개인 법인의 경우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 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교육지원청, EBS커리어와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 업무 협약

군산시는 군산교육지원청, EBS커리어와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30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어린이가 사랑 받으며 행복하게 성장해야 한다는 가치의 실현을 위해 체결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반별 학생과 교사가 전문기를 통한 단체 상담으로 우정과 사랑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관계 개선 프로그램 운영 ▲영·유아·청소년 등 시기별·단계별 즐거운 학교생활이 가능한 맞춤형 인성프로그램 운영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개인별 맞춤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정책 건의한 새학기 증후군 예방사업을 반영한 군산교육지원청과 EBS커리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어린이와 친구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꿈을 찾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고군산군도 연결 교량 6개소 명칭 수상작 결정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고군산군도 연결 교량 6개소 명칭의 수상작이 결정됐다.

군산시는 지난 23일 개최된 심사위원회에서 6개 교량에 대한 최우수 명칭으로 몽돌교, 신시교, 고군산무녀대교, 무녀해안교, 선유교, 어화교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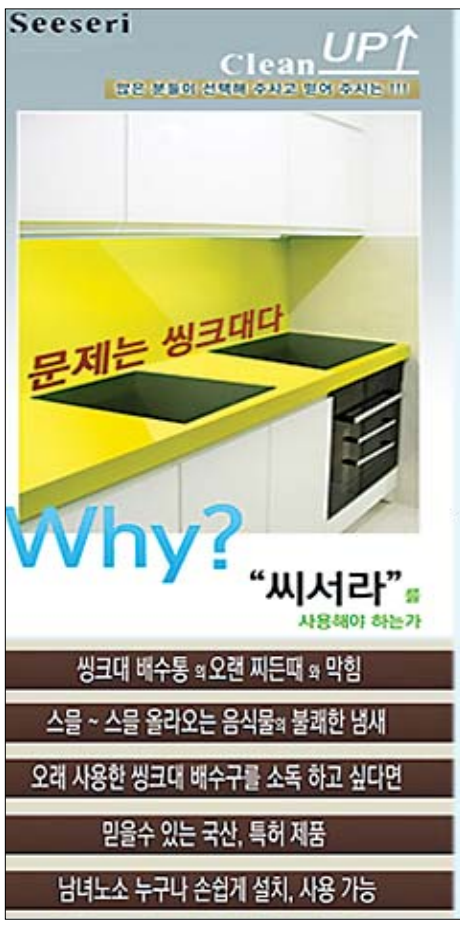
이번 공모에는 교량이 설치되는 고군산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많았으며 심사는 공모 접수된 537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동일한 명칭으로 중복 신청한 경우 먼저 응모한 시민을 수상자로 결정했으며 공모에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시상품이 전달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교량의 명칭은 4월중 개최되는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사업시행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안 명칭과 공모에 선정된 최우수 명칭,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상정할 계획이다"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전달해 고군산군도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최적의 명칭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주) 코포스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각 지역 총판 및 딜러모집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광고 게제기간동안 공동구매시 설치비 30%할인 행사합니다.

코포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게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 www.seeseri.com / www.씨서리.com을 방문하시면
상품정보, 각종동영상, 자세한 자료, 사업의 비젼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 이병기 010-5628-1256. see8709@naver.com